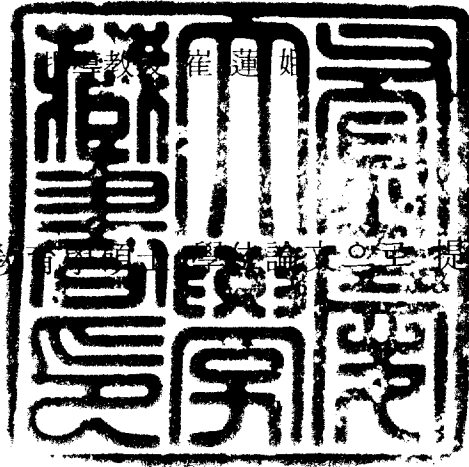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 川端康成의 『山の音』 論

-죽음에 관한 信憑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8月

釜慶大学校 教育大学院

日語教育専攻

金 美 暎

# 金美峴의 教育学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主審 金 祥 圭 (印)

委員 崔 蓮 姬 (印)

委員 吳 京 煥 (印)

# 目 次

|                                 |    |
|---------------------------------|----|
| * Abstract .....                | ii |
| I 序論 .....                      | 1  |
| II 本論 .....                     | 5  |
| 1. 『山の音』의 構成 .....              | 5  |
| 2. 『山の音』의 家族像 .....             | 7  |
| 2-1. 菊子 .....                   | 8  |
| 2-2. 修一 .....                   | 11 |
| 2-3. 里子 .....                   | 13 |
| 3. 『山の音』의 夢 .....               | 17 |
| 3-1. 「たつみ屋の小父さん」・「娘」・「相田」 ..... | 18 |
| 3-2. 「松島」 .....                 | 22 |
| 3-3. 「聖少女」 .....                | 24 |
| 3-4. 「電気剃刀」 .....               | 26 |
| 3-5. 「乳」 .....                  | 27 |
| 3-6. 「陸軍の将校」 .....              | 31 |
| 3-7. 「卵」 .....                  | 33 |
| 4. 自然을 통한 인식의 변화 .....          | 35 |
| 4-1. 『山の音』의 自然 .....            | 35 |
| 4-2. 「不死」의 죽음 .....             | 41 |
| III 結論 .....                    | 47 |
| <参考文献> .....                    | 49 |

# **Discussion of 「Yamanoto」 by Kawabata Yasunari**

**-Focusing on Change of Singo's cognizance about death-**

**Mi Hyeo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Yamanoto」 is the masterpiece of Kawabata Yasunari. Singo is the hero in this novel. One day he happened to hear the whisper of mountain. And he knew from Kikuko that Yasuko's older sister had heard it before she died. Then he realized that his death was coming.

Watching beautiful Kikuko, his daughter-in-law, he thought that she was the illusion of Yasuko's older sister. In this point of view, the relation between Yasuko's older sister and Kikuko is an important theme in this novel. Also his internal fear of death is an important theme.

Singo had 9 dreams, and they showed his mental conflicts. They came from his self-consciousness and fear of death. And they told us his tenacity for life through sexual relations that were impossible in real life. But Kikuko's abortion gave him a turning point. Kikuko, the symbol of real life, produced death. Therefore her image that represented the real life was destroyed, and also her image as the illusion of Yasuko's older sister was disappeared.

At the turning point, Singo found the nature which reproduced itself. He overcame the nothingness of life through the nature. The nature repeats

generations with continual extinction and reproduction. His excessive tenacity for life were removed through it.

The overcoming of nothingness through nature is also showed in Kawabata Yasunari's other work, 「Husi」. The imperfect and vain meeting between Sintaro and Misako is changed into the perfect one through the nature. The theme of 「Husi」 is similar with that of 「Yamanotoo」.

# I 序論

『山の音』는 川端康成의 후기 문학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sup>1)</sup>

『山の音』는 제 1장「山の音」가 1949년 『改造文芸』 9월호에 발표되기 시작한 작품으로, 최종 장(16장)인 「秋の魚」가 1954년 『オール読み物』 4월호에 게재되기 까지 약 5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山の音』는 16장이 각기 한편의 단편처럼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꾸준히 되어왔다.

지금까지의 『山の音』에 대한 연구는 작품 전반에 걸쳐 제시되는 아홉 개의 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주인공 信吾와 며느리 菊子, 그리고 保子の姉(이하 처형이라 칭함)와의 연애감정에 대한 분석. 또한 소설의 배경이 되는 東京, 鎌倉, 信州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시간적 분석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山の音』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론은 주인공 信吾의 死生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분석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山の音』의 경우 작품 속에서 여러 죽음의 유형에 대한 분석<sup>2)</sup>이 가능하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간과할 수 없었던 戦後라는 시대 설정, 그리고 주인공 信吾의

1) 단행본은 1954년 4월에 간행되었다.

2) 작품 속 죽음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自殺: 일본 조정협회부회장 부부「春の鐘」, 蓮台寺에서 죽은 相原「雨の中」
- 戦争: 전쟁 미망인 絹子, 池田의 남편들「朝の水」, 北本 아들 3명「朝の水」  
반 전쟁 미망인 英子の 애인「夜の声」
- 病死: 처형「山の音」, 脳溢血으로 죽은 相田「蟬の羽」, 島山「栗の実」  
島山보다 일찍 죽은 두 친구「栗の实」, 北本「朝の水」, 肝臓癌 걸린 친구「蛇の卵」
- 墮胎(半自殺): 소녀의 낙태「夜の声」, 菊子친구의 낙태「夜の声」, 菊子の 낙태「鳥の家」
- 他殺: 할아버지(61세)가 소아마비아이를 교살「春の鐘」
- 其他(정확한 원인이 언급되지 않음): たつみ屋さん「蟬の羽」,  
미인 여화가「雲の炎」, 水田「島の夢」, 「勸進帳」의 배우 3명「雲の炎」

연령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62세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山の音」라는 제목에서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川端康成は、死をみつめることによって自己の文学を構築してきた作家である。小説にせよ、評論にせよ、独自の死生観がいつも見えかくれている。  
(川端康成은 죽음을 응시하는 것에 의해 자기의 문학을 구축해 온 작가이다. 소설이든, 평론이든, 독자적인 사생관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sup>3)</sup>

川嶋 至氏<sup>4)</sup>는 위와 같이 川端康成의 문학에서 <죽음>이라는 테마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林 武志氏<sup>5)</sup>는 『山の音』의 경우, 일종의 <심경소설·사소설>이라는 견해가 많은 것처럼 주인공 信吾와 작가 川端康成가 동일시되어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김채수氏<sup>6)</sup>는 다음과 같이 信吾와 川端康成의 동일시를 통해 작가의 자살동기까지論하고 있다.

그는 이 사생관을 정립시키는 과정에서 죽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품을 생자에게 남겨주게 함으로써 그 유품을 매개로 해서 생자로 하여금 죽는자를 기억케하여, 죽는자가 생자들의 기억을 통해 생자들의 세계에서 영생해 간다는 생각을 가장 깊게 했던 것 같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자신의 작품을 접하는 생자들의 자신에 대한 기억들을 통해 이

3) 本稿의 원문 및 인용문의 한글 번역은 論者에 의한 것임.

4) 川嶋 至, 「川端康成の死生観」,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91.9

5) 林 武志, 『鑑賞日本現代文学⑮ 川端康成』, 角川書店, 1982.11

6) 김채수, 「川端康成의 사생관」,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세상에서 영생해 보겠다는 욕망에서 그러한 자살을 행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채수氏의 論과 같이 川端康成의 작품 속에서 분석한 死生觀을 근거로 하여 작가의 실생활에 있어서의 死生觀을 이끌어 내는 연구는 異論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와 같이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을 극단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川端康成의 자살동기까지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 『山の音』와 작가 川端康成의 실생활과의 관계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즉, 『山の音』의 주인공 信吾와 작가 川端康成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山の音』를 구성하고 있는 16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山の音』는 주인공 信吾를 둘러싼 가족사에 관한 소설이다. 그 속에서 60代인 信吾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 두려움은 性에 대한 집착이라는 꿈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信吾가 느끼는 두려움은 여느 노인이 느끼는 연령에서 오는 죽음의 회피와는 다른 것이다. 그는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 집착의 근원은 며느리 菊子도 아니고, 삶 자체도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保子の 죽은 언니, 즉 처형인 것이다. 처형을 죽음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세계에서 찾게 됨으로써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 信吾의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는 뒤틀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信吾가 자연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超越의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超越적인 자세는 처형과의 재회할 수 있다는 信吾의 소망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山の音』의 주인공 信吾의 <죽음>에 대한 극복과정에 대한 구조는 9년 뒤의 川端康成의 또 다른 작품인 「不死」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不死」에서 주인공 新太郎가 자신의 연인인 みさこ와의 재회를 소망하는 모습은 信吾의 처형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과 유사하다. 또한 信吾가 자연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新太郎도 「大樹」라는 자연을 통해 みさこ와 완전한 재회를 이루게 된다. 즉, 『山の音』에서의 처형과의 재회에 대한 암시가 「不死」에서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不死」에서의 新太郎의 죽음에 대한 극복과정과 信吾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論者の 위와 같은 『山の音』에 대한 분석은 명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信吾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과 <꿈>에 대한 분석과 함께, 「不死」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信吾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Ⅱ 本論

### 1. 「山の音」의 構成

『山の音』는 제 1장 「山の音」가 1949년 『改造文芸』 9월호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최종 장(16장)인 「秋の魚」가 1954년 『オール読み物』 4월호에 게재되기 까지 약 5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sup>7)</sup>

이와 같이 『山の音』는 긴 시간에 의해 완성된 작품으로, 한 장 한 장이 독립된 단편의 형식으로 여러 잡지에 단독적으로 발표된 작품이다.

『山の音』는 주인공 尾形信吾를 중심으로 하는 尾形가족 일가의 이야기이다. 62세의 信吾는 어느 한 회사의 사장으로, 鎌倉의 自宅에서 東京까지 横須賀線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 그의 아내 保子は 한살 연상으로, 信吾와 같은 信州 출신이다. 슬하에는 딸 房子와 아들 修一이 있다. 房子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이다. 房子의 남편 相原는 마약중독자로 범죄에 연루된 후 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다. 결국 信吾는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지 않자 房子를 이혼시킨다. 아들 修一도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전쟁미망인인 絹子라는 愛人를 두고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絹子が 임신을 하자 修一은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남편에 대한 반감과 결벽증으로 며느리 菊子は

---

7) 「山の音」「蟬の羽」「雲の炎」「栗の実」「鳥の夢」「冬の桜」「朝の水」「夜の声」「春の鐘」「鳥の家」「都の苑」「傷の後」「雨の中」「蚊の群」「蛇の卵」「秋の魚」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스스로 낙태를 하고 修一과 헤어지려는 결심을 한다.

이러한 자식들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信吾는 어느날 새벽 「山の音」 즉, 산소리를 듣게 된다. 信吾는 「山の音」를 들은 다음, <죽음>이라는 사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인공 信吾의 62세라는 연령에 의해 죽음이라는 소재를 이끌어 내지만, 소설 속 信吾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외면상으로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지도 않은 노인이라 할 수 있다.

還暦の去年、信吾は少し血を吐いた。肺かららしいが、念入りの診察も受けず、改まった養生もせず、その後故障はなかった。

これで老衰したわけではない。むしろ皮膚などはきれいになった。半月ほど寝てゐた時も、目や唇の色が若返ったやうだつた。<sup>8)</sup>

(작년 환갑 때 싱고는 피를 조금 토했다. 폐로부터인 것 같은데, 정밀 검사도 받지 않고 별다른 보양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이상은 없었다.

그로 인해 노쇠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부는 깨끗해졌다. 보름 정도 누워 있었을 때도, 눈이나 입술 색은 오히려 젊음을 되찾은 것 같았다.)

즉, 信吾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이지, 표면으로 들어나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信吾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죽음>의 공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8) 川端康成, 『山の音』(現代日本文学全集37, 川端康成集), 筑波書房, 1955.11 p. 297  
本稿의 『山の音』 引用은 위의 책에 의함.

「お母さまのお姉さまがおなくなりになる前に、山の鳴るのをお聞きになつたて、お母さまおつしやつたでせう。」信吾はぎくつとした、そのことを忘れてゐたのは、まったく救ひがたいと思つた。山の音を聞いて、なぜそのことを思ひ出さなかつたのだらう。9)

(「어머님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산이 울리는 것을 들으셨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싱고는 움찔했다. 그것을 잊고 있었다니 완전히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했다. 산소리를 듣고도 왜 그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을까?)

위의 소설 속 내용과 같이 「山の音」라는 죽음의 암시와 그것이 자신이 동경하고 사랑한 처형도 죽기 며칠 전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며느리 菊子에 의해 새삼 자각하게 되면서, 주인공 信吾의 내면은 복잡한 행로를 걷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소설은 信吾에게 드리워진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작품전반에 흐르게 되고 그 안에서 가족과의 갈등, 며느리 菊子, 처형에의 애정 등 복잡한 노년의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갈등을 통해 信吾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山の音』를 제대로 읽어 내기 위해서는 주인공 信吾의 <가족>이라는 人間關係와 함께 그의 내면에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죽음>에 대한 고뇌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 2. 「山の音」의 家族像

信吾의 내면은 죽음이라는 사념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즉, 信吾에게

---

9) 『山の音』 「山の音」 p. 302

있어 시간의 흐름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다.

栗坪良樹氏<sup>10)</sup>는 주인공 信吾는 현재의 시간에서 파생되는 人間關係의 굴곡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가족>이라는 굴레가 주인공 信吾의 무력감과 황폐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소설은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尾形一家의 황폐함은 信吾의 처형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信吾는 처형을 동경한 나머지, 그의 여동생인 保子와 결혼한다. 保子에게서 처형의 환생을 염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信吾의 집착으로 구성된 가족은 황폐해 저만 간다. 아들 修一와 愛人인 絹子の 문제, 딸 房子의 이혼, 이러한 황폐함 속에 「姉の生まれがはり」라고 생각되어지는 며느리 菊子が 있는 것이다.

## 2-1. 菊子

菊子라는 존재와 信吾의 내면의 변화는 『山の音』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음의 고지라도 같은 소리, 즉 「山の音」를 처형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信吾에게 일깨워주는 인물인 菊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菊子の 존재는 信吾에게 있어서의 <처형>과 <죽음>이라는 갈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菊子が嫁に来た時、

(中略)

ほつそりと色白の菊子から、信吾は保子の姉を思ひ出したりした。<sup>11)</sup>

(기쿠코가 시집 왔을 때, (중략) 호리호리하고 살결이 흰 기쿠코로부터

10) 栗坪良樹, 「山の音論」, 『国文学解釈と鑑賞, 第56巻9号』, 至文堂, 1991

11) 『山の音』 「山の音」 p. 300

싱고는 야스코의 언니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

이러한 菊子の 아름다운 모습은 信吾에게 처형의 존재를 일깨워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처형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진 菊子は 信吾에게 있어, <죽음>에서 <生>을 이끄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菊子の生まれたのは、もういないし、もう出来ないと、思ひこんだ後で、母もこの年でと恥ぢ、自分の体を呪つたほどで、墮胎をこころみたがしくじつた。難産で額に鉤をかけられた。12)

(기쿠코가 태어난 것은 이제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낳을 수 없다고 굳게 결심한 뒤여서, 모친도 이 나이로는 수치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저주 했을 정도로, 낙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난산이어서 이마를 검자로 집어 꺼내었다.)

모든 사람이 <生>에서 <죽음>이라는 행로를 걷는 데 반해, 「墮胎をこころみたがしくじつた」 한 상황에서도 菊子は 태어났고, 역행적인 菊子の 탄생 과정은 <죽음>에서 <生>의 행로를 걷게 된 인물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菊子の 존재는 <죽음>의 사념으로 힘들어하는 信吾에게 희망적이고 동경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처형에게서 얻지 못하는 감정을 <生>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菊子が流産した子供、この失はれた孫こそは、保子の姉の生まれがはりではな

---

12) 『山の音』 「山の音」 p. 300

かつたらうか、そしてこの世には生を与へなれぬ美女ではなかつたらうか、といふやうな妄想にとらへられて、なほ自分におどろいた。13)

(기쿠코가 유산한 아이, 잃어버린 손자야 말로 처형의 환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생을 부여받지 못하는 미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망상에 휩싸인 자신에게 더욱 놀랐다. )

즉, 菊子는 딸의 못생긴 외모라든지, 손녀의 괴팍스런 성격에서 좌절된 처형에 대한 환생 염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菊子の 낙태로 인해 그 염원은 이룰 수 없게 된다.

즉, <죽음>에서 <生>을 이끈 菊子が <生>의 이미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それは菊子の、半ば自殺だぞ。さうはおもはんのか。お前にたいする抗議といふよりも、半ば自殺だぞ。」14)

(「그건 기쿠코의 반 자살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니? 너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도 반 자살이야.」)

信吾는 이러한 菊子の 낙태 즉, <죽음>의 생산에 대해 「半ば自殺だぞ」라고 修一에게 말한다. 이것은 信吾에게 있어서 유일한 <生>의 이미지가 좌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菊子は <生>의 이미지에서 「半ば自殺」이라는 <죽음>의 이미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菊子の 「半ば自殺」행위는 더 이상 菊子와 처형의 동일시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 「この世には生を与へなれぬ美女ではなかつたらうか」라는 식의 ‘유산된 아이가 처형

---

13) 『山の音』 「都の苑」 p. 361

14) 『山の音』 「鳥の家」 p. 357

이 아닐까' 라는 발상으로부터 결국 처형은 결코 현실의 세계 즉, <生>의 세계에서는 획득될 수 없는 인물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생에서는 처형과의 재회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처형과의 재회는 현생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이 『山の音』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이러한 菊子에 대한 信吾의 감정의 변화에 있다. <生>의 이미지의 菊子에게서 信吾는 낙태를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망상을 현실의 세계로 되돌리는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現実の彼方の女性を地上に投影するのが菊子である。」(현실의 저편의 여성을 지상에 투영한 것이 기쿠코이다.)와 같은 大久保喬樹<sup>15)</sup>의 관점과 小沢成明<sup>16)</sup>의 「美しい姉の女性像が現在の菊子と重なって映る。」(아름다운 처형의 여성상이 현재의 기쿠코와 겹쳐져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은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2-2. 修一

주인공 信吾는 <性>을 「戦争に圧殺された」 상태이고, 아들 修一 또한 전쟁으로 인한 공허함으로 菊子와 결혼 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絹子라는 愛人을 두고도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이다. 또한 菊子の 유산 비용을 絹子에게 받아서 줄 정도로 도덕성을 상실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信吾에게는 자신의 부도덕함을 깨우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15) 大久保喬樹, 『川端康成一美しい日本の私一』, ミネルヴァ書房, 2004.4.

16) 小沢成明, 「『山の音』の人物論」, 『川端康成文芸の世界』, 桜楓社, 1980



「お父さんはなにも、よそから来た者に遠慮なさ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

(中略)

「だから息子の女房に、遠慮なさらなくともいいと言ってるんです。」 17)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온 사람에게 그 정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략) 「그러니까, 아들 마누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

「菊子だつて自由ですよ、ほんたうに自由なんですよ。兵隊でも囚人でもありません。」 18)

(「기쿠코도 자유예요. 정말로 자유예요. 병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修一은 「よそから来た者に遠慮なさ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라고 信吾의 菊子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꼬집고, 「菊子だつて自由ですよ」라고 菊子の 自由에 대해 언급하면서 菊子에 대한 信吾의 감정은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자각하게끔 한다.

修一の精神の痲痺と頽廢とにおどろいたが、信吾自身も同じ泥沼にうごめいていると思はれた。 19)

(슈이치의 정신의 피폐와 퇴폐에 놀랐지만, 싱고 자신도 같은 수렁에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

17) 『山の音』 「朝の水」 p. 338

18) 『山の音』 「秋の魚」 p. 394

19) 『山の音』 「都の苑」 p. 367

또한, 위와 같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修一과 信吾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전쟁으로 인해 <生>의 생산을 압살당하고 <性>에 집착하게 되는 인물이 信吾라고 한다면, 修一은 전쟁이라는 정신의 피폐 속에서도 끊임없이 <生>을 생산해 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菊子は修一にあまり早く女が出来たので、嫉妬のすべにも迷ふありきまだつたが、しかし修一の麻痺と残忍とのしたで、いやそのためにかへつて、菊子の女は目ざめて来たやうでもある。<sup>20)</sup>

(기쿠코는 슈이치에게 너무나 빨리 여자가 생겨서 질투의 방법마저도 방향을 잃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슈이치의 마비와 잔인 하에서, 아니 그 때문에 오히려, 기쿠코의 女性性은 싹트기 시작한 것 같기도 했다.)

위의 소설 내용처럼 修一의 <性>은 菊子を 性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또한 修一의 <性>은 菊子は 물론, 絹子에게서도 새 생명을 잉태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菊子로 하여금 스스로 낙태를 하게 만든다.

이러한 修一과의 공통점과 상이점으로부터 信吾는 자신의 부도덕함을 깨닫게 된다. 信吾의 이러한 자각이 菊子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모티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信吾로 하여금 현실의 세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인식변화의 촉진제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 2-3. 里子

---

20) 『山の音』 「冬の桜」 pp. 333~334

『山の音』의 등장인물에 관한 많은 연구 중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인물이 손녀 里子이다. 그러나 손녀 里子の 존재 또한 주인공 信吾의 심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손녀 里子에 관한 본격적인 묘사는 「蟬の羽」부터 시작이 된다.

かういふ風に手を引いて歩くのに、里子は正合悪い子供だつた。母親が困つたり弱つたりの際に、なほ変にむづかる子供だつた。<sup>21)</sup>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걷기에는 사토코는 다루기 어려운 아이였다. 이상하게도 엄마가 곤란해 하거나 난처해할 때에 더욱 보채는 아이였다.)

信吾에게 있어서 里子は 여느 집안처럼 귀여운 손녀의 이미지가 아니다.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 나쁜 영향을 받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손녀 里子에게서 처형의 환생을 바랐던 信吾에게는 여간 안타까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里子もしんねりといこちで、大人が負けて油蟬の羽根を切つても、まだぐづついてゐた。羽根を切らせたばかりの蟬を、そつとかくすやうな素振りで、暗い目つきで、庭に投げ捨てたりした。大人が見てゐることを知つてゐるのだ。<sup>22)</sup>

(사토코는 똥하니 고집불통이어서 어른이 저주어 유지매미의 날개를 잘라도 다시 청얼대고 있었다. 날개를 막 자른 매미를 살짝 감추는 척 하면서 어두운 눈빛으로 정원에 던져 버리거나 했다. 어른이 보고 있

---

21) 『山の音』 「蟬の羽」 p. 302

22) 『山の音』 「蟬の羽」 p. 307

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廊下をべたべた走る里子の足音が寝不足の信吾は耳ざはりであつたが、さう腹立たしいわけでもなかつた。

しかし、孫の足音といふ、やはらぎも感じなかつた。たしかに信吾はやさしさに欠けてゐただらう。23)

(복도를 철떡 철떡 달리는 사토코의 발소리가 수면 부족의 싱고에게는 귀에 거슬렸지만,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손녀 발소리라고 하는 편안함도 느끼지 못했다. 확실히 싱고는 상냥함이 결핍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손녀 里子の 괴팍스런 성격에 좌절한 信吾는 점점 손녀로서의 애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信吾의 감정은 단지 里子の 성격상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소설의 내용과 같이 信吾는 里子를 보면서 처형을 떠올리게 된다.

踊りの子につかみかかりさうだつた里子の、凶悪、狂暴な性質は、房子の血をひいたのだらうか。母の房子の方とすると、房子の父方の信吾の血筋か、母方の保子の血筋か。

もし信吾が保子の姉と結婚してゐたら、房子のやうな娘は生まれなかつただらう。

思ひがけないことで、信吾はまた昔の人が、縋りつきたいやうに恋しいのだつた。24)

---

23) 『山の音』 「冬の桜」 p. 330

24) 『山の音』 「春の鐘」 pp. 352~353

(무용복을 입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토코의 흉악하고 광포한 성질은 후사코 피를 이어받은 것일까? 엄마인 후사코 쪽이라고 하면 후사코 아버지인 싱고 핏줄인가, 엄마인 야스코 핏줄인가. 만일 싱고가 야스코 언니와 결혼했다라면 후사코 같은 딸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외로 싱고는 또 옛날 사람이, 매달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웠다.)

즉, 처형의 환생은 房子에게서 좌절되고, 다시 한번 里子에게서 좌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처형의 환생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은 菊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형에 대한 집착은 현실에서의 菊子の 집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里子에 대한 信吾의 생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菊子の 낙태를 통해 <죽음>의 생산을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망상을 현실의 세계로 되돌리게 되고, 손녀 里子 또한 더 이상 처형의 환생의 실패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信吾의 심경의 변화는 다음의 내용에서 읽어 낼 수 있다.

信吾が歩き出すと、

「おちいちやま。」と追ひすがつて来た。

信吾は通りに出る角まで、孫の手を引いて行つた。走つて帰る里子の影も、夏らしかった。25)

(싱고가 걷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하며 바싹 매달려 왔다. 싱고는 큰길로 나오는 모퉁이까지 손녀 손을 잡고 갔다. 뛰어 돌아가는 사토코 그림자도 여름 같았다.)

---

25) 『山の音』 「雨の中」 p. 377

즉 순수한 손녀로서 「手を引いて行つた。」와 같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처형의 실패작 이었던 里子の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순수한 자신의 손녀로서의 존재임을 새삼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里子は 信吾의 평범한 손녀로서 원래의 본질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信吾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구성체는 信吾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그 극복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처형에 대한 집착으로 형성된 <가족>으로 인해, 信吾는 고통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을 통해 처형의 환생을 현실에서 바랐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이 부도덕한 것임을 修一로부터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처형의 환생이기를 기대했던 里子도 평범한 자신의 손녀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족>을 통해 자신의 덧없는 집착을 깨닫게 되고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 3. 『山の音』의 夢

信吾에게 있어서 인생의 회의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러한 공포감은 信吾의 내면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信吾의 내면적인 갈등을 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꿈의 본질이라는 것이 허망하고 덧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꿈을 통해 표출되는 信吾의 내면적 갈등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山の音』의 <꿈>의 세계는 <生>의 세계의 갈망이고, <죽음>의 세계

에서의 탈출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山の音』에서 나타나는 信吾의 아홉 개의 꿈은 <가족>의 역할이 그리 하듯이 주인공 信吾의 일상과 함께 내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信吾의 꿈에 대해 鶴田欣也氏<sup>26)</sup>는 젊음을 되찾고 싶어 하는 信吾의 「時間逆行」인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信吾의 꿈에는 젊은 여성과의 性관계 꿈 등, 信吾의 「時間逆行」적인 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연이라든지 信吾를 둘러싼 모든 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흘러가고 있는 것에 반해, 信吾가 꾸고 있는 꿈은 그 변화를 역행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1. 「たつみ屋の小父さん」・「娘」・「相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꿈은 하룻밤 사이에 연달아 꾸는 꿈으로, 이 꿈을 꾸기 전에 信吾는 기억력의 감퇴와 같은 “늙음”에 대한 회의와, 「山の音」를 들은 후,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 또한 옆집의 해바라기를 보며 “남성”을 생각하는 등, <性>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고 있다.

また、さかんな自然力の重感に、信吾はふと巨大な男性のしるしを思った。

(中略)

菊子がそばに來たので、変なことを思ひつくのかしらと、信吾は日まわりを離れて歩き出した。<sup>27)</sup>

26) 鶴田欣也, 『川端康成への視点』, 明治書院, 1971

27) 『山の音』 「蟬の羽」 p. 304

(또 왕성한 자연력의 증감에 싱고는 문득 거대한 남성의 상징을 생각했다. (중략) 기쿠코가 옆에 왔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하며 싱고는 해바라기를 벗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信吾는 해바라기에 “남성”을 생각한 까닭이 「菊子がそばに來たので、変なことを思ひつくのかしら」라고 하면서 <性>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머느리 菊子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性>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꿈으로 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たつみ屋さん에 관한 꿈으로 시작된다.

たつみ屋さん은 3~4년 전에 일흔이 넘어 죽은 목수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꿈을 꿀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런 たつみ屋さん의 꿈에서 信吾에게 메밀국수를 대접한다. 이 꿈의 연장선상에서 たつみ屋さん의 딸 중의 한명과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죽음>의 고지와도 같은 꿈과 <性>에 대한 꿈을 잇달아 꾸게 되는 것이다.

触れたことはたしかに覚えてゐる。相手が誰であつたかは、まったく思ひ出せない。思ひ出す手がかりをなに一つ覚えてゐない。

(中略)

相手の姿も消えてしまつて、思ひ浮ばない。信吾が今覚えてゐるのは、ゆるい感覚だけだ。28)

(손을 댄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상대가 누구였던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생각해 낼 단서를 무엇 하나 기억하고 있지 않다. (中略) 상대의 모습도 사라져 버리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싱고가 지

---

28) 『山の音』 「蟬の羽」 p. 306



금 기억하는 것은 느슨한 감각뿐이다.)

이 꿈에서 信吾는 たつみ屋さんの 딸로 생각되는 한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ゆるい感覚」 뿐이다. 꿈에서 깨어난 信吾는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젊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꿈을 꾸고는 난잡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싱겁다는 느낌에 이상함마저 느끼게 된다.

잇달아 곧 세 번째 꿈은 腦溢血로 죽은 信吾의 회사 중역이었던 相田의 꿈이다. 相田 역시 たつみ屋さんが 매밀국수를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信吾에게 술을 권한다.

この夢の後で直ぐに眠った。まもなくまた夢を見た。

大兵肥満の相田が一升徳利をぶらさげて、信吾の家へ上つて来た。大分飲んだらしく、毛穴のひろがつたやうな赤い顔で、素振りににも酔ひが見えた。<sup>29)</sup>

(그러나 그 꿈 뒤에 곧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꾸었다. 몸집이 거대한 아이다가 한 되들이 술병을 들고 싱고의 집에 들어왔다. 상당히 마신 듯 털구멍 투성이의 빨간 얼굴에 거동만 보아도 취기가 보였다.)

이 두 꿈은 모두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信吾는 「お迎えに来たのかね」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념 속에서 信吾는 젊은 여자와 관계한 꿈을 생각한다.

また、今朝の夢のなかのたつみ屋と相田との顔や姿は、まざまざと見えた。不断の記憶よりもはつきりしてゐる。相田の酔ひで赤い顔は、実際にはなかつた顔だ

---

29) 『山の音』 「蟬の羽」 p. 306

が、毛穴のひろがつたのまで思ひ出される。

たつみ屋や相田の姿が、こんなにはつきり思ひ出せるのに、おなじ夢で触れた娘は、姿も覚えてゐず、誰かもわからないのはなぜであらう。

(中略)

感覚の失望をおぼえてゐるだけだ。30)

(게다가 오늘 아침 꿈속의 다쓰미 아저씨와 아이다의 얼굴과 모습은 생생히 보였다. 보통 때 기억보다도 확실했다. 아이다의 술에 취한 빨간 얼굴은 실제로는 없었던 얼굴이지만, 털구멍이 만연한 것까지 생각이 난다. 다쓰미 아저씨와 아이다의 모습이 이렇게 확실히 기억하는데, 같은 꿈에서 관계를 가진 여자의 모습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은 왜일까. (중략) 감각의 실망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信吾는 たつみ屋さん, 相田의 모습은 「不斷の記憶よりもはつきりしてゐる。」와 같이 생생히 기억하는 데 반해, 「おなじ夢で触れた娘は、姿も覚えてゐず、誰かもわからない」와 같이 관계를 가진 젊은 여자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 부도덕한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잊은 것도 아니지만, 단지 「ゆるい感覚」와 「感覚の失望」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꿈속의 기억은 信吾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표시인 듯 하다. <죽음>이라는 공포는 <性>에 대한 집착의 강도 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공포에 둘러싸인 信吾에게는 <性>에 대한 자신의 집착은 부도덕한 행위로 작용하지 못한다. 즉, <性>, <生>에 대한 집착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영위하길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감정인 것이다. <죽음>에 대한 회피와 <性>에 대한 집착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느끼는 <生>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

30) 『山の音』 「蟬の羽」 pp. 306~307

### 3-2. 「松島」

「松島」의 꿈은 네 번째로 꾸게 되는 꿈이다. 꿈에서 信吾는 소나무 그들의 초원에서 여자를 포옹하고 있었다. 여자는 아주 젊었고, 여자를 포옹하면서 信吾 또한 연령차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信吾は松蔭の草原で女を抱擁してゐた。おびえてかくれてゐた。連れを二人で離れて来たらしい。女は非常に若かつた。娘であつた。自分の年はわからなかつた。女と松のあひだを走つた工合から考へても、信吾も若いはずだつた。娘を抱擁して、年齢の差は感じてゐなかつたやうだ。若い者がするやうにした。しかし、若返つたとも、昔のことだとも思はなかつた。信吾は六十二歳の現在のままで二十代だといふ風だつた。そこが夢の不思議だつた。31)

(싱고는 소나무 그들의 초원에서 여자를 포옹하고 있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일행들로부터 돌아서 떨어져 나온 것 같다. 여자는 무척 젊었다. 아가씨였다. 자신의 나이는 몰랐다. 여자와 소나무 사이를 달린 상황으로 보아 싱고도 젊었을 것이다. 아가씨를 포옹하고 연령의 차이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젊은이들이 하듯이 했다. 그러나 다시 젊어졌다고 해도 옛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싱고는 62살의 현재 그대로 20대라는 식이었다. 그 것이 꿈의 이상한 점이다.)

즉, 信吾는 62세 이면서 20대 젊은이로 꿈속에 나타난다. 상대한 여자와의 연령차는 느끼지 않는 듯하지만 「信吾は六十二歳の現在のままで二十代だ」라는 식으로 자신이 20대이었는지, 지금의 나이인지 모호한 상태이다. 이 꿈도 두 번째 꿈과 같이 꿈을 깬 후, 信吾는 상대한 여자가 누구인지

---

31) 『山の音』 「島の夢」 p. 323

모른다.

白いハンカチのところで目がさめた。

朝起きてからは、相手の女が誰かわからなかつた。顔も姿もない。触感も残つてゐない。景色ばかりが鮮明だつた。<sup>32)</sup>

(하얀 손수건 부분에서 잠이 깨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상대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얼굴도 모습도 없다. 감촉도 남아 있지 않다. 경치만이 선명하였다. )

이 꿈 또한 두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景色ばかりが鮮明だつた」라는 식으로 여자의 모습만은 기억하지 못한다. 즉, <性>대한 집착과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信吾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松島」는 信吾가 간접이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信吾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엿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해 鶴田欣也氏<sup>33)</sup>는 「松島は日常世界と反対の一種のパラダイスになっている。」(松島는 일상 세계와 반대인 일종의 파라다이스가 되어 있다.)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즉, 「松島」라는 장소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미지의 세계에서 젊음을 회복 하고자 하는 信吾의 내면이 표현된 것이다.

또한 たつみ屋さんの 딸과 관계를 가졌을 때와는 달리, 이 꿈에서는 信吾의 모습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20代이다. 즉, 꿈속에서 信吾는 상대한 여자와 연령차를 느끼지 않는 젊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젊은 모습이라는 형태를 통해 信吾는 더 이상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지만, 松島の 꿈은 たつみ屋さん 딸과의 관계의 꿈처럼 「相手の女が誰かわからなか

32) 『山の音』 「島の夢」 p. 324

33) 鶴田欣也, 「まぼろしいからうつへ」, 『『山の音』の錯覚と発見』, 南窓社, 1980

つた。顔も姿もない。触感も残つてゐない。」와 같이 여자의 모습은 희미하다. 이것은 꿈속에서 시간 역행적인 모습, 즉 젊음을 되찾았다고 할지라도 꿈에서 깨어나 현실세계로 돌아옴과 동시에 그러한 젊은 모습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한다. 즉, 현실의 세계에서는 信吾의 「時間逆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長谷川泉氏<sup>34)</sup>가 계속되는 信吾의 <性>에 대한 집착에 대해 性이 소멸될 수록 그것은 비현실의 세계로 도약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信吾의 남자로서의 <性>의 퇴색이 이러한 꿈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性>에 대한 퇴색은 곧 <生>에 대한 퇴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3. 「聖少女」

信吾는 「少女が雙生兒を生む。青森にゆがんだ(春のめざめ)」 (소녀가 쌍둥이를 낳았다. 青森에 비뚤어진 성충동) 이라는 표제의 신문 기사를 읽고, 쇼크를 받은 듯 다섯 번째 꿈을 꾸게 된다. 이러한 信吾의 쇼크는 꿈에서 성스럽게 변하게 된다.

おぼえてゐるのは、十四五の少女が墮胎をしたといふことと、「さうして、なにになに子は永遠の聖少女となつたのである。」といふ言葉だけだつた。

(中略)

十四五で墮胎をして、聖少女とは奇怪だが、それには長い物語があつた。少年と少女との純愛の名作物語を信吾の夢は読んでゐたのだつた。読み終つて、日がさめた時には、感傷が残つてゐた。<sup>35)</sup>

---

34) 長谷川泉, 『川端文学の機構』, 教育出版センター, 1984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열네댓의 소녀가 낙태를 하였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무슨 무슨 아이는 영원한 성소녀가 된 것이다.」라는 말 뿐이었다. (중략) 열네댓 살로 낙태를 하고 성소녀라니 기이하지만, 거기에는 긴 이야기가 있었다. 소년과 소녀의 순애를 다룬 명작 이야기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다 읽고 잠이 깨었을 때는 감상이 남아 있었다.)

이 꿈은 <性>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꿈이라 할 수 있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다룬 명작 이야기를, 信吾는 꿈속에서 제 3자인 구경꾼 입장에서 꿈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꿈과는 달리 信吾는 꿈의 주인공이 아니다. 또한 난잡한 10代の 성충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다음 꿈이지만 낙태한 소녀는 「聖少女」가 되어 있다. 이러한 꿈의 표출은 信吾의 <性> 즉, <生>에 대한 집착이 성스럽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信吾의 심리를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聖少女」의 꿈을 꾸 후, 처형을 떠올리지만, 결국 그 이미지는 菊子에게 투영 된다

信吾はその少女に、保子の美しい姉の面影を夢見たのかと思つてみたが、さうでもなさうだつた。

(中略)

こんなに幼げなところが、まだ菊子には残つてゐるのか。信吾は昨夜の夢を思ひ出した。<sup>36)</sup>

(싱고는 그 소녀에게 야스코의 아름다운 처형의 모습을 꿈꾸었는가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중략) 이렇게 어린아이

35) 『山の音』 「夜の声」 p. 343

36) 『山の音』 「夜の声」 pp. 343~344

같은 점이 아직 기쿠코에게는 남아 있는 것인가. 상고는 어젯밤 꿈을 떠올렸다.)

이렇게 처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信吾 스스로 菊子에 투영시키고 있지만 그 이미지는 菊子에게 한정되기 보다는 信吾의 현실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죽음사람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 꿈과 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시작된 꿈에서 점점 <性>에 집착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과 같이 현실에 대한 집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信吾의 꿈은 <性>에 대한 집착을 보여 줌으로써 <죽음>의 세계에 대한 탈출과 <生>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한다.

### 3-4. 「電氣剃刀」

여섯 번째 꿈은 菊子에게 「電氣剃刀」를 선물 받고 꾸는 「あごひげ」에 관한 꿈이다.

電氣剃刀のせゐか、信吾はあごひげの夢を見た。

(中略)

あごひげにはアメリカ各州、各人種によつてちがふ毛の束が、房のやうにぶらさがつてゐるわけだ。

アメリカ政府はこの男のあごひげを、天然記念物に指定した。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たので、この男は自分のあごひげを、みだりに切ることも手入れすることも出来ない。37)

(전기면도기 닳인지 상고는 턱수염 꿈을 꾸었다. (중략) 턱수염에는 미

---

37) 『山の音』 「傷の後」 p. 371

국 각 주, 각 인종에 따라 다른 털 다발이 송이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남자의 턱수염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자신의 턱수염을 함부로 자를 수도, 손질할 수도 없다.)

信吾는 매일 「電氣剃刀」로 수염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伸び方題」의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八つ手」를 修一과 자른 다음 꿈의 끝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행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信吾는 벚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八つ手」를 계속 자르지 못하다가, 이윽고 자르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菊子の 낙태사건 이후의 일이고, 또한 修一로부터 「菊子の自由」에 대한 말을 듣고 난 다음의 결심이다. 즉, 信吾는 이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벚나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듯이 菊子를 자신의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역시 <生>에 대한 갈망이 엿보인다.

천연기념물인 자신의 수염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남자처럼 자신도 그 남자가 느끼는 득의와 곤혹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菊子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즉, <生>과 <죽음>에 대한 혼란함이라는 信吾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5. 「乳」

연이어 信吾는 한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꿈을 꾸게 된다.



信吾は尖り気味の垂れ乳をさはつてゐた。乳房は柔らかいまだつた。張つて来ないのは、女が信吾の手に答へる気もないのだ。なんだ、つまらない。

乳房にふれてゐるのに、信吾は女が誰かわからなかつた。わからないといふよりも、誰かと考へもしなかつたのだ。女の顔も体もなく、ただ二つの乳房だけが宙に浮いてゐたやうなものだ。そこで初めて、誰かと思ふと、女は修一の友だちの妹になつた。38)

(싱고는 뽀족한 느낌의 늘어진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가슴은 부드러운 채였다. 부풀지 않는 것은 여자가 싱고 손에 반응할 마음조차 없는 것이다. 뭐야, 시시하잖아. 가슴을 만지고 있지만 싱고는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 모른다고보다도 누구인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 얼굴도 몸도 없고, 단지 두개의 젖가슴만이 공중에 떠 있었던 것 같다. 거서 처음으로 누군지 생각하자 여자는 슈이치의 친구 여동생이 되었다.)

이 꿈 또한 <性>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속에서信吾는 사랑도 기쁨도 일지 않는 정말이지 시시한 감정을 느낀다. 여자의 순결을 느끼고 난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信吾는 꿈에서 깨어나 「なんだ、つまらない」라고 말한다.

「なんだ、つまりない。」といふのは、森鷗外の死ぬ時の言葉だつたと、信吾は氣がついた。いつか新聞で見たやうだ。

しかし、いやな夢からさめるなり、鷗外の死ぬ時の言葉を先づ思ひ出して、自分の夢のなかの言葉と結びつけたのは、信吾の自己遁辭であらう。39)

---

38) 『山の音』 「傷の後」 p. 372

39) 『山の音』 「傷の後」 p. 371

(「 뭐야, 시시하잖아.」라는 것은 모리 오가이가 죽을 때 한 말이 었다고 싱고는 생각이 났다. 언젠가 신문에서 본 듯하다. 그러나 음란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오가이가 죽을 때 한 말을 먼저 떠올려서 자신의 꿈속의 말과 연결시킨 것은 싱고의 자기변명일 것이다.)

음란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鷗外の死ぬ時の言葉」을 먼저 떠올려 자신의 꿈속의 말과 결부시킨 것은 信吾 자신의 변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信吾は近年自分が見たみだらな夢を思ひ出して見ると、たいてい相手はいはゆる下品の女だ。今夜の娘のさうだつた。夢にまで姦淫の道德的苛責を恐れてゐるのではなからうか。40)

(싱고가 최근에 자신이 꾸 음란한 꿈을 떠올려 보니 대개 상대는 소위 천한 여자다. 오늘밤 여자도 그랬다. 꿈에서까지 간음의 도덕적 가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性>과 관련된 꿈의 상대는 소위 천한 여자라고 信吾는 생각한다. 그러나 「修一の友だちの妹」이었던 꿈속의 여자가 처음으로 현실세계의 동경의 대상인 「菊子の化身」로서 나타나게 된다.

夢の娘は菊子の化身ではなかつたのか。夢もさすがに道德が働いて、菊子の代わりに修一の友だちの妹の姿を借りたのではないか。しかも、その不倫をかくすために、苛責をごまかすために身代わりの妹を、その娘以下の味気ない女に変へたのではないか。41)

---

40) 『山の音』 「傷の後」 p. 371

41) 前掲注 40)

(꿈속의 아가씨는 기쿠코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꿈에도 역시 도덕이 작용해서 기쿠코 대신에 슈이치의 친구 여동생 모습을 빌린 것이 아닐까. 더구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가책을 감추기 위해서 대역인 여동생을 그 여자 이하의 시시한 여자로 바꾼 것이 아닐까.)

이것은 앞의 꿈에서 보여 지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꿈속의 등장인물은 이제는 信吾와 만날 수 없는 인물이며 信吾의 꿈속에만 존재하는 비현실 세계의 인물이다. 또한 꿈에 대한 상념은 꿈속에서 그치고 현실의 세계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꿈은 꿈에서 깨고 난 후 현실의 세계의 菊子를 등장인물로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信吾의 <生>과 <죽음>에 대한 혼란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함을 信吾는 자신의 의식으로 지워 버린다.

また後から思ひ出すと、夢の相手がぼやけ、夢の筋道もぼやけて、よくおぼえてゐず、乳房をさぐる手のころよさもなかつたのは、目ざめ際に、もう狡猾なものが機敏に働いて、夢を掻き消したのかとも疑はれた。<sup>42)</sup>

(또 나중에 생각해 내면서 꿈 상대가 희미해지고 꿈의 순서도 흐릿해져서 잘 기억나지 않고 유방을 더듬는 손의 쾌감도 없었던 것은 잠이 깰 무렵에 이미 교활한 것이 기민하게 작용하여 꿈을 끊어 지운 것인가 하고도 의심이 되었다.)

결국 소위 천한 여자들을 통해 <꿈>의 세계 속에서만 표출되었던 성적

---

42) 『山の音』 「傷の後」 p. 371

욕망이 菊子를 통해 현실의 세계로까지 표출되는 것이다. 信吾 스스로도 부도덕하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目ざめ際に、もう狡猾なものが機敏に働いて、夢を掻き消したのかとも疑はれた。」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 번 꿈이 菊子の 낙태와 菊子와 修一の 관계 호전 등, 일련의 사건 뒤에 보여 지는 꿈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信吾의 菊子를 통한 <生>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혼란 속에서 菊子를 통해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信吾의 인식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6. 「陸軍の將校」

이번 꿈에서 信吾는 「若い陸軍の將校」로서 허리에는 「日本刀」를 차고 등장하여, 「信州」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信州」에서 처형의 모습도 보게 된다.

保子の寢息を聞きながら、信吾は寢つきが悪く、すぐ夢を見た。  
若い陸軍の將校になつてゐて、軍服の姿で、腰に日本刀をさげ、ピストルを三挺つけてゐた。

(中略)

蚊の群が大木の形にかたまつてゐる。どうしようかと信吾は考へた。  
切り抜けるんだ。信吾は日本刀を抜き拂つて、蚊のかたまりを切つて切つて切りまくつた。

ふとうしろを見ると、木こりはころがるやうに逃げて行つた。信吾の軍服の方々から火が出た。をかしいことにそこで信吾は二人になつて、火の出る軍服の信吾を、もう一人の信吾がながめてゐる。

(中略)

信吾はどうやら自分の家に着いた。子供のころの信州の田舎の家らしい。保子の美しい姉も見えた。<sup>43)</sup>

(야스코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싱고는 잠이 잘 오지 않더니 금방 꿈을 꾸었다. 젊은 육군 장교가 되어 있고 군복 모습으로 허리에 일본도를 차고 권총 세 자루를 차고 있었다. (중략) 모기떼가 큰 나무 모양으로 모여 있다. 어떻게 할까 싱고는 생각했다. 뚫고 나가기로 했다. 싱고는 일본도를 뽑아 들고 모기떼를 닥치는 대로 마구 잘랐다. 문득 뒤를 보자 나무꾼은 덩굴 듯이 도망쳤다. 싱고의 군복 여기저기에서 불이 나왔다. 이상하게도 거기서 싱고는 두 사람이 되어, 불이 나오는 군복의 싱고를 또 한명의 싱고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중략) 싱고는 간신히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어린 시절의 신슈 집인 것 같았다. 야스코의 아름다운 언니도 보였다.)

信吾 자신이 젊어진 꿈은 「松島」의 꿈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松島」의 꿈에서는 「信吾は六十二歳の現在のままで二十代だといふ風だった。」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젊음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信州」에서의 꿈에서는 「若い陸軍の將校になつてゐて、軍服の姿で、腰に日本刀をさげ、ピストルを三挺つけてゐた。」와 같이 信吾는 완전한 젊음을 되찾게 된다. 즉, 자신이 젊어 질 수 있는 공간은 자신의 상상으로 만들어 낸 이상적인 공간인 「松島」가 아니라, 처형이 있는 「信州」인 것이다.

金碩子氏<sup>44)</sup>가 황천과 같은 소망의 땅이라고 「信州」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이 「信州」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결코 획득될 수 없는 信吾의 이상

43) 『山の音』 「蚊の群」 p. 383

44) 金碩子, 「川端康成の『山の音』研究」, 『同日語文研究』, 동덕일어일문학회, 1991.2

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信吾는 「蚊の群」를 칼로 물리친다. 이 행위는 잔 모기떼와 같이 信吾의 내면에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갈등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즉, <性>, <生>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회피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をかしいことにそこで信吾は二人になつて、火の出る軍服の信吾を、もう一人の信吾がながめてゐる。」와 같이 그 극복과정을 또 다른 信吾, 즉 현실의 세계의 信吾가 보고 있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꿈>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의 信吾도 「若い陸軍の将校」과 같은 심정으로 <生>에 대한 집착을 자르는 것은 아닌가 한다. 다른 꿈에 비해 비교적 상세한 묘사 또한, 꿈의 세계이면서 현실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는 단서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극복과정을 통해 꿈속에서 현실세계의 信吾는 처형과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7. 「卵」

마지막 꿈에서 信吾는 「駝鳥の卵」과 「蛇の卵」의 꿈을 꾸게 된다.

このごろは夢が多いが、夜明けにまた長い夢を見た。

(中略)

そこに卵が二つならんでゐた。一つは駝鳥の卵でずいぶん大きかつた。一つは蛇で小さかつたが、その殻が少しわれて、可愛い子蛇が頭を出して動かしてゐた。信吾はほんたうに可愛いと思つて見てゐた。

しかし、菊子と絹子とのことを考へてゐたので、こんな夢を見たのにちがひなかつた。どちらの胎児が駝鳥の卵でどちらの胎児が蛇の卵かは、無論わからなかつ

た。45)

(요즘은 꿈을 많이 꾸는데 새벽녘에 또 긴 꿈을 꾸었다. (중략) 거기에 알이 두개 나란히 있었다. 한 개는 타조알인데 상당히 컸다. 한 개는 뱀알로 작았지만, 그 껍데기가 조금 깨지고 귀여운 새끼 뱀이 머리를 내밀로 움직이고 있었다. 싱고는 정말로 귀엽다고 생각하며 보고 있었다. 그러나 기쿠코와 기누코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어느 쪽의 태아가 타조알이고, 어느 쪽의 태아가 뱀알인가는 물론 알 수 없었다.)

信吾는 修一の 애인 絹子の 임신소식을 듣고 난 후, 菊子도 또 다시 임신했는지 모른다는 保子の 말을 전해 듣고는 이 꿈을 꾸게 된다. 絹子와 菊子の 태아 중 「どちらの胎児が駝鳥の卵でどちらの胎児が蛇の卵」인지 모른다.

이 꿈이 信吾가 菊子로부터 <죽음>의 생산을 목격하고, 또한 <재생하는 자연>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여기서 두개의 「卵」 또한 다른 자연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잉태와 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꽃과 새와 「テル」와 같은 자연이 그러하듯 信吾는 자신 내면의 혼란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하나의 자연으로서 자신 또한 재생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인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信吾의 아홉 개의 꿈은 소설의 흐름 속에서 <生>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性的인 꿈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高橋英夫氏<sup>46)</sup>도 『山の音』의 대부분의 꿈이 현실의 억압에 의한 「性夢」이라고

45) 『山の音』 「蛇の卵」 p. 386

46) 高橋英夫, 「川端康成における夢の摂理『山の音』試論」, 『国文学』, 学灯社, 1987

지적하고 있다.

즉, 『山の音』에서 信吾의 충족되지 못한 성적인 욕망이 꿈의 형태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性夢」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信吾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것의 회피, 또 그로인한 <生>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あこひげ」, 「陸軍の将校」와 「卵」의 꿈에서는 점점 그러한 <性>, <生>에 대한 집착이라는 내면적 갈등으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信吾의 인식의 변화 과정 또한 보여 진다고 할 수 있다.

## 4. 自然을 통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4-1. 『山の音』의 自然

信吾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生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모티브는 자연이다. 信吾는 이전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자연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소멸과 재생을 인식하게 된다.

『山の音』 초기에 信吾의 의식에 포착된 자연은 허무하다.

蟬も悪夢に怯えることがあるのだらうか。

蟬が飛びこんで来て、蚊帳の裾にとまつた。

信吾はその蟬をつかんだが、鳴かなかつた。

「おしだ。」と信吾はつぶやいた。<sup>47)</sup>

(매미도 악몽에 떠는 일이 있을까? 매미가 날아와서 모기장 자락에 앉

---

47) 『山の音』 「山の音」 p. 297



았다. 싱고는 그 매미를 잡았지만 울지 않았다. 「병어리다。」라고 싱고는 중얼거렸다.)

信吾は伊勢海老を指先でつついてみた。生きてゐるのだらうが、動かない。48)  
(싱고는 왕새우를 손끝으로 찔러 보았다. 살아있는 것이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信吾는 살아 있지만 울지 않는 매미를 보며 「おしだ。」라는 허무한 독백을 하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왕새우를 보면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信吾의 눈에 포착된 자연은 살아 있지만 허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과 같이 信吾에게 인식되는 자연은 점점 허무에서 탈피해 감을 알 수 있다.

태풍에 잎이 다 날라 가도 다시 새 잎을 내고, 밑동이 뜯겨 나가도 아직 파랗게 살아있는 자연을 信吾는 인식하게 된다.

公孫樹の大木が再び芽を吹いた。49)  
(은행나무 거목은 재차 싹을 내었다.)

黒い小犬を目で追つてみると、実際に大きいあざみの倒れてゐるのに気づいた。花は失せ、茎の根元から折れながら、あざみはまだ青々としてゐた。

「あざみは強いもんだね。」と信吾は言つた。50)  
(검은 강아지를 눈으로 쫓고 있다가 창가에 커다란 엉겅퀴가 쓰러져

---

48) 『山の音』 「山の音」 p. 299

49) 『山の音』 「栗の実」 p. 314

50) 『山の音』 「島の夢」 p. 329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꽃은 없어지고 줄기의 밑동부터 꺾어졌지만, 엉겅퀴는 아직 파랬다. 「엉겅퀴는 강하구나。」 하고 싱고는 말했다.)

「あざみは強いもんだね。」라고 말하고 있듯이 信吾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자연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信吾의 염원이기도 한 것이다.

信吾가 아직 菊子の 낙태를 목격하지 못한 시점에서 인식된 자연은 信吾의 집착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信吾의 인식은 매년 자신의 집 뒷산에 찾아오는 술개를 보면서 자연의 강인함을 넘어서 재생의 이미지를 포착하게 되면서 변화하게 된다.

また、果して同じ鶯の声をなん年もつづけて聞いてゐるのか。代変りしてはゐないのか。いつのまにか鶯の親は死に、子の鶯が鳴いてゐるのではないだらうか。信吾がさう思つたのは、今朝が初めてだ。51)

(또 과연 같은 술개 소리를 몇 년이나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일까. 변한 것은 아닐까. 어느 사이엔가 술개 어미는 죽고 새끼 술개가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싱고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늘 아침이 처음이다.)

매년 찾아오는 술개를 보며 「代変りしてはゐないのか。いつのまにか鶯の親は死に、子の鶯が鳴いてゐるのではないだらうか。」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자연의 생명, 즉 자연의 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生>에 대한 집착을 버려도 <죽음>을 통해 다시 <生>을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을 통해 <生>의 세계에서 더 이상은 처형의 환영을 찾지 않도록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信吾에게 경이로움의 대상 즉, 이상적 대상이 된다.

---

51) 『山の音』 「鳥の家」 p. 356

信吾は保子が見てみたらしい四五日分の新聞を拾ひ上げて、読むともなしに見てみると、「花開く二千年前の蓮」といふ珍らしい記事があつた。

(中略)

信吾はしばらく蓮華の写真を見つめてみてから、その新聞を持つて、菊子の居間へ行つた。<sup>52)</sup>

(싱고는 야스코가 보고 있었던 것 같은 4, 5일분의 신문을 집어 들고 읽는 등 마는 등 보고 있자, 「꽃 피는 2000년 전의 연꽃」이라는 보기 드문 기사가 있었다.)

信吾는 「花開く二千年前の蓮」의 꽃씨가 발아하여 꽃을 피웠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된다.

信吾는 낙태 후 잠시 친정에 가 있는 菊子와 新宿御苑에서 만나게 된다. 新宿御苑에서 젊은 男女들의 데이트하는 모습에 違和感を 느끼기도 하지만, 枇杷나무 앞에 선 信吾는 枇杷나무의 자연스런 성장모습에 감화된다.

「じつにみごとな枇杷の木だね。邪魔するものがないから下のほうの枝まで、思ふ存分に伸ばしてゐるんだな。」

木の自由で自然な成長の姿に、信吾は豊かな感動をした。

(中略)

「うちの庭のさくらね、あれも根もとの八つ手を取つてやらう。」<sup>53)</sup>

(「정말 훌륭한 비파나무구나.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래쪽 가지까지 마음껏 뻗어 있구나.» 나무의 자유스러운

---

52) 『山の音』 「鳥の家」 pp. 358~359

53) 『山の音』 「都の苑」 pp. 365~366

성장 모습에 싱고는 풍부한 감동을 느꼈다. (중략) 「우리 집 정원 벗꽃 말이지, 그것도 뿌리 부분의 팔손이나무를 잘라 주자꾸나.」)

실로 아름다운 枇杷나무를 보면서, 菊子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고 집에 있는 「八つ手」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菊子를 자유롭게, 즉 <生>, <性>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연의 순리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信吾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식사자리에서 이러한 자신의 의식에 대해 말하게 된다.

「今は身を水にまかすや秋の鮎、とか、死ぬことと知らで下がるや瀬々の鮎、とかいふ昔の句があつてねどうやら、わたしのことらしい。」<sup>54)</sup>

(「지금은 몸을 물에 맡기는 가을 은어라든가, 죽을 것을 모르고 내려가는 여울의 은어라든가 하는 옛날 구가 있지. 아무래도 내 얘기 같구나.」)

즉 강에 알을 낳은 후 바다로 돌아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가을 연어와 같이 자신 또한 자연이 그러하듯이 <生>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또 다른 재생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信吾의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가르침을 통해 허무함을 안겨 준 가족은, 信吾가 해결해야 할 가을의 연어의 소명과도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生>에 대한 집착, 菊子에 대한 집착에서 <죽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

54) 『山の音』 「秋の魚」 p. 397

信吾의 의식의 전환에 자연이 모티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菊子에 대한 애정의 증폭이라든지, 꿈에서 들어나는 <生>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역행적 관념은 이러한 <재생되는 자연>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극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 대한 허무와 노년에 대한 비애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生>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죽음>을 통해 <生>을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을 받아들임으로써 환영이 아닌 진정한 존재로서의 처형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自然にとっての信吾の順応は消極的な諦観ではなくて、もっと能動的・建設的な意味をもった諦観である。

(자연에 대한 싱고의 순응은 소극적인 체관이 아니라, 더욱더 능동적·건설적인 의미를 가진 체관이다.)

上田真氏<sup>55)</sup>의 자연에 대한 능동적인 순응이라는 위와 같은 지적과 같이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던 信吾의 시도는 <재생하는 자연>을 발견함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포기적인 순응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信吾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같이 순리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순응적인 信吾의 자세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전생이라는 윤회사상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信吾의 인식 변화의 근저에 있는 처형과의 관계는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죽음>에 대한 信吾의 순응적 태도는 단지 자연을 통한 의식의 전환으

55) 上田真, 「おぼろしの紅葉をたずねて」, 『川端康成『山の音』研究』, 明治書院, 1985

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처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순응적인 信吾의 태도는 사실은, 처형과의 재회라는 我執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信吾의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처형의 환영으로서 菊子を 응시하는 것도 菊子の 낙태로 인해 좌절되는 등, 처형은 현실에서 菊子を 통해서든 손녀 里子を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얻을 수 없는 인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처형과의 재회는 信吾의 최대의 소망인 것이다.

이렇게 信吾의 처형에 대한 我執은 현실의 세계에서 좌절됨과 동시에 자연을 통해 죽음의 세계로 이행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따라서 『山の音』에서 주인공 信吾는 죽음에 대해 단지 순응적인 자세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을 연어와 같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信吾의 심리적 변화는 처형과의 재회라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2. 「不死」의 죽음

『山の音』에서 信吾는 <재생되는 자연>이라는 통로를 통해 자신의 소원인 처형에게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 이러한 <生>과 <죽음>에 대한 구도는 川端康成의 단편소설 「不死」<sup>56)</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不死」는 『山の音』가 발표된 9년 후인 1963년 8월에 朝日新聞 「PR 판」에 실린 작품으로, 『山の音』와 마찬가지로 78세 가량의 노인을 주

56) 川端康成, 「不死」(『掌の小説』所収), 新潮文庫, 1971, p. 471  
本稿의 「不死」 引用은 위의 책에 의함.

인공으로 하고 있다. 옛 첫사랑은 이미 자살하여 죽은 상태로, 미즈코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결국 죽음을 통해서 그녀와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 소설은 옛 여인을 靈의 상태로 현실에 등장시킴으로써 몽환적이고, 괴기함을 자아내고 있다.

老人と若い娘とが歩いていた。

この二人には、奇妙なところがいろいろあった。年がおそらく六十もちがうのを、おたがいに感じないかのように、恋人の姿で寄りそっていた。老人は耳が遠い。娘の言うことはほとんど聞えない。

(中略)

芝生を少し行くと、二人の前に高い金網が立っていた。向かって歩けばぶつかるのに、恋人たちは金網も目につかぬようだ。二人は立ちどまりもしないで、ふっと金網を通り抜けた。そよ風のように……。

通り抜けてから、娘は金網に気がついたか、

「まあ？」といぶかしげに老人を見た。「新太郎さんも金網をお通りになられたの？」

老人は聞えない。57)

(노인과 젊은 여자가 걷고 있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묘한 점이 있었다. 나이가 거의 60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서로는 느끼지 못하는 듯이 연인의 모습으로 걷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귀가 멀었다. 여자가 말하는 것은 거의 듣지 못한다. (중략) 잔디를 걷고 있을 때 두 사람 앞에 철망이 가로 막았다. 계속 걸어가면 부딪힐 텐데 연인은 쇠팅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두 사람은 멈추지도 않고, 쑥하고 철망을 빠져나갔다. 바람처럼... 빠져 나가고 나서, 여자는 철망을 깨달았는

---

57) 「不死」 p. 471

지, 「뭐야?」라고 의아스러운 듯 노인을 보았다. 「신타로상도 철망을 빠져나온 거야?」)

「不死」에서 주인공 新太郎노인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어딘지 완전하지 못하다. 靈의 상태인 みさこ는 끊임없이 新太郎노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新太郎노인은 거의 듣지 못한다. 「耳が遠い」상태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세계도 아니고, 靈의 세계, 즉 <죽음>의 세계도 아닌 지금의 상태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는 허공의 울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山の音』에서의 주인공 信吾의 <꿈>의 세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信吾가 꿈의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처형과, 菊子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과 같이 新太郎노인과 みさこ는 완벽하지 못하고 몽환적이며 기괴한 <生>과 <죽음>의 중간적인 세계에서 완벽한 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新太郎노인은 みさこ와의 완벽한 재회를 위해 「そうだ。いっしょに死のう。こんどは……。迎えに来てくれたんだね。」라며 죽기로 결심한다.

「行きましょう」と、いそぐ娘に老人は手を引かれて、よろよろと大樹に近づいた。娘は木の幹のなかを、すうっと通り抜けた。老人も通り抜けた。「まあ？」娘は怪しんで老人を見つめた。「新太郎さんも死んでるの？死んでいるの？いつ？」

「……………」

「死んでいるのねえ。ほんとう……？死の世界では会えなかったの、ふしぎねえ。さあ、もう一度、生死のためしに幹を通してみてね。新太郎さんが死んでいるのなら、いっしょに木のなかへはいってしまってもいいわね。」大樹の幹のなかに消えて、老人も娘も出て来なかった。<sup>58)</sup>

---

58) 「不死」 pp. 474~475



(「갑시다」라고, 서두르는 여자에게 노인은 손을 당겨, 비틀 비틀거리며 大樹로 향했다. 여자는 나뭇가지 속을, 스윙 하고 빠져 나갔다. 노인도 빠져 나갔다. 「뭐야?」 여자는 이상한 듯 노인을 응시했다. 「신타로상도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언제?」 「……………」 「죽었군요. 정말……? 죽음의 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거야? 이상하구나. 자, 한번 더, 시험 삼아 생사의 가지를 통과해 봐. 신타로상이 죽었다면, 함께 나무 속 으로 들어가 버려도 괜찮아.」 大樹의 가지 속으로 사라진 노인과 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같이 결국, 주인공 新太郎도 「大樹」라는 자연을 통해 이미 죽은 상태임이 밝혀진다. 「大樹」를 통하지 않았을 때 두 연인은 서로 <生>과 <죽음>이라는 이원적 세계에서 완벽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大樹」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일원적 세계에 함께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大樹」속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生>의 세계에서가 아닌, <죽음>의 세계, 즉 저승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다.

新太郎와 みさこ에게 있어서 みさこの 죽음으로 인해 불완전한 두 연인의 관계가 다시 <죽음>이라는 형태로 완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不死」에서는 두 연인에게 있어서<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의 대상은 아닌 듯 하다. 단지, 현실의 세계를 이원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두 연인을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계를 「大樹」라는 자연을 통해 해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大樹の幹のなかに消えて、老人も娘も出て来なかった。」와 같은 소설의 내용으로부터 新太郎와 みさこ가 선택한 재회방법은 환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不死」에 있어서 <生>의 세계는 몽환적이고 불완전하며, 「大樹」

을 통과한 <죽음>의 세계는 新太郎와 みさこ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세계가 되는 구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栗坪良樹氏<sup>59)</sup>는 『山の音』에서 信吾의 <꿈>의 세계에 대해 생과 죽음의 「はざま」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夢>が生きてあることと死んだ状態との重なり合う中間の状態であるとすれば、  
<信吾>の<夢>の頻度は彼を生と死のはざまに招き寄せ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꿈>이 살아 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겹친 중간 상태라고 한다면,  
<싱고>의 <꿈>의 빈도는 그를 생과 죽음의 틈새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生と死のはざま」라는 栗坪良樹氏の 지적은 「不死」에서의 新太郎의 「大樹」를 통과하기 전의 <죽음>의 세계도 아니고 <生>의 세계도 아닌 불완전한 세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山の音』에서 그려지는 현실의 세계 즉, <生>의 세계는 信吾에게는 불완전한 세계로, 자신의 염원인 처형은 <죽음>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新太郎와 みさこ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계는 『山の音』에서 信吾가 <죽음>의 세계를 극복하기 전과 같이 두려운 공포의 존재로서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山の音』에서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자신의 我執을 관철하고 처형을 획득하려는 信吾의 모습에서, 新太郎의 자살을 통해서라도 みさこ와 재회하려는 모습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연을 통한 재회라는 점에서는 두 작품

---

59) 前掲書

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그 극복과정에 『山の音』에서는 <재생하는 자연>이 있듯이, 「不死」에서는 「大樹」라는 자연이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두 주인공 모두 환생을 통한 연인과의 재회가 아니라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不死」에서 新太郎가 「大樹」에 머무름으로써 みさこ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信吾도 처형의 환생을 통한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不死」는 『山の音』의 속편과도 같은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信吾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不死」에서 新太郎가 그러했듯이 <死의 세계>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처형과의 완벽한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 III 結論

『山の音』의 가족과 꿈을 통해 주인공 信吾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信吾는 『山の音』를 듣는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념의 증폭에는 노년이라는 신체적·정신적인 자각과 함께 자신의 염원과 달리 황폐해져가는 가족으로 인한 삶에 대한 허무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山の音」를 듣는 것을 계기로 등장하는 처형에 대한 동경은 그것이 며느리인 菊子에 의해 자각되어진 것이라는 점과, 信吾 자신도 菊子が 처형의 환영이 아닐까라는 의식에서 菊子, 처형의 관계는 『山の音』에서 信吾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중요한 주제로써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信吾의 내면적인 갈등과 그 인식의 변화를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 信吾가 꾸는 아홉 개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꿈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공포에서 출발하여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성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순리적인 꿈의 표현은 현실에 대한 집착으로 信吾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信吾의 내면의 갈등은 菊子の 낙태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즉 현실의 세계를 대표하고 생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菊子が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낙태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菊子は 죽음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인물로 전환되고, 菊子の 생의 이미지는 파괴되어 처형의 환영으로서의 菊子 또한 소멸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信吾가 발견한 것이 <재생되는 자연>이다.

信吾는 소멸과 재생을 반복하며 세대를 거듭하여 존재하는 자연의 섭리

를 통해 자신의 비순리적인 생에 대한 집착을 지워가는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되는 자연>을 통한 허무의 극복의 근거에는 信棼의 처형에 대한 我執이 내재해 있는 듯 하다. 자연과 같이 순리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신의 동경의 대상인 처형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信棼의 최대의 소망인 것이다. 이 소망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처형의 환영으로서 菊子를 응시하는 것도 菊子の 낙태로 인해 좌절되는 등, 처형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든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즉, 처형에 대한 信棼의 집착은 현실의 세계에서 좌절됨과 동시에 자연을 통해 죽음의 세계로 이행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즉, 가을 연어와 같이 죽음에 대해 순응적인 자세를 취하는 信棼의 심리적 변화는 처형과의 재회라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자연을 통한 허무의 극복과정 구도는 川端康成의 또 다른 작품 「不死」에서도 볼 수 있다. 「不死」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재회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회는 新太郎와 みさこ에게 있어서 『山の音』의 信棼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통해 완성된다. 즉,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완전하고 허무적인 만남이 「大樹」라는 자연을 통해 완벽한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山の音』에서 <재생되는 자연>을 통해 주인공 信棼의 허무가 극복된다는 구조의 구체화된 표현이 담긴 작품으로서 「不死」를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川端康成은 『山の音』 信棼의 심리변화를 또 다른 작품 「不死」의 결말 부분에서 <죽음>으로 완성되는 재회와 같이 信棼의 처형에 대한 집착을 <죽음>으로 관철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 <参考文献>

- 川端康成, 『現代日本文学全集37, 川端康成集, 『山の音』』, 筑波書房, 1955.11
- \_\_\_\_\_, 『掌の小説』, 「不死」, 新潮文庫, 1971
- 長谷川泉, 『川端文学作品研究』, 入木店書, 1961
- \_\_\_\_\_, 『川端文学の機構』, 教育出版センター, 1984
- 長谷川泉・鶴田欣也, 『『山の音』 分析研究』 南窓社, 1980
- 川嶋 至, 『川端康成の世界』, 講談社, 1970
- \_\_\_\_\_, 「川端康成の死生観」,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91.9
- 林 武志, 『鑑賞日本現代文学⑮ 川端康成』, 角川書店, 1982.11
- 原 善, 『川端康成一その遠近法』, 大修館書店, 1999
- 栗坪良樹, 「山の音論」, 『国文学解釈と鑑賞, 第56巻9号』, 至文堂, 1991
- 小沢成明, 『川端康成文芸の世界』, 桜楓社, 1980
- 大久保喬樹, 『川端康成一美しい日本の私一』, ミネルヴァ書房, 2004.4
- 兵藤正之助, 『川端康成論』, 春秋社, 1998
- 鶴田欣也, 『川端康成への視点』, 明治書院, 1971
- \_\_\_\_\_, 『『山の音』の錯覚と発見』, 南窓社, 1980
- \_\_\_\_\_, 『川端康成の芸術』, 明治書院, 1981
- 김채수, 「川端康成의 사생관」,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 金碩子, 「川端康成の『山の音』研究」, 『同日語文研究』, 동덕일어일문학회, 1991.2
- 権海珠, 「川端康成의 「不死」에 있어서의 주제와 생사관」, 『日語日文学』, 大韓日語日文学会, 2004